

發明教室

發明으로 成功한 사람들의 이야기

한平生 외길 執念 發明

大起産業社 朴魯陽 사장



〈朴魯陽 사장〉

大起産業社 朴魯陽사장은 세계적 인 고단백질 요소사료를 開發하여 올해 제네바 國際發明展에서 영예의 金賞을 획득했다.

74세의 나이로 發明人중 원로급에 속하는 朴사장은 日本 東京大 전기화학과를 나와 지금까지 發明人이라는 외길인생을 살아왔다.

『요소의 결집인 潮解性과 흡수성을 억제하고 遲溶性을 높여서 사료의 안정성과 보전성 및 기호성을 화학적인 또는 물리적인 방법을 부여해 줌으로써 성공을 거둔 것이지요.』

이렇게해서 고단백질 요소사료를 생산 공급하게 되면 가축사료인 대두·대두박·옥수수·소맥·어분등을 수입대체할 수 있어 年間 3억달러의 외화절약을 할 수 있다고 朴사장은 설명했다.

『日本에서 공부할 땐데 민족의식은 당연한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지지 않으려는 경쟁심이 끝내 發明人の 길을 걷게된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東京大 재학시절에 알루미늄의 원광석 「보크사이트」를 재련하는 방법을 發明해 特許를 받은 朴사장은 학교는 물론 日本 全域에 話題를 모았던 장본인으로 죽자사자 그들에게 뛰어나다를 보이기엔 전력을 다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런 오기와 집념은 급기야 29세의 약관으로 2천명 종업원의 모 군수공장의 총책을 맡아 日本人들도 넘보기 어려운 지위를 누리기도 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로는 해방 당시만해도 수동으로 큰 사고가 많

았던 열차의 자동정지 및 신호장치를 發明해 그때까지 속수무책이었던 대사고를 막고 시속 60km가 오작이었던 속력을 1백10km 이상 달릴 수 있게한 것이지요.』

朴사장은 수많은 發明과 함께 산업발전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추진과 더불어 發明사상 고취를 절감해 發明人들의 뒷바라지는 물론 커나가는 後學들에게 發明사상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그런데 朴사장의 많은 發明品 중에서도 이번에 發明한 고단백질 요소사료는 국내 축산업계 뿐만 아니라 세계 축산업계를 포함한 일대 혁명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래 요소는 가격이 저렴하고 蛋白質(Protein)가 높아 반추동물형 사료의 경제적인 담백원으로 이용하려는 연구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계속되어 왔으나 「未분야」 상태였기 때문이다.

현재 호주로 부터는 합작 제의가 와서 상당 중이고, 국내적으로도 호평을 받고 있다. (㉞)

第39回 發明教室

5月 9日, 成功事例 등 發表

- … 本會는 지난 5月 9日 特許廳 研修室에서 第39回 發明教室을 開催했다. ……………○
- … 每月 둘째 土曜日 午後 1時에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이달에도 200여명이 參席…○
- …하여 盛況을 이루었다. 이날 發明教室에서는 韓國不燃化學(株) 金載運 社長과…○
- …大起産業社 朴魯陽 社長の 成功事例 發表에 이어 本會 金寬衡 연구부장의 「工…○
- …業所有權制度」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
- … 두 發明人의 成功事例를 간추려 紹介한다. ……………〈朴鎔碩 記〉○

・・魔퇴치 不燃劑 發明人 韓國不燃化學(株) 金載運 社長

韓國不燃化學(株) 金載運 社長은 오직 火魔퇴치에 一生을 걸고 失敗와 刻苦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不燃劑를 發明하는데 성공했다.

金사장은 마치 發明에 미친 사람과 같이 發明 하나에 青春을 바쳐 이 發明외에도 20여건의 特許를 登錄 또는 出願중에 있다.

金사장이 不燃劑 發明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77년.

화재발생으로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대형화되는 점을 피부로 느껴 火魔에 대한 평소의 관심을 새롭게 인식, 직장까지 그만두고 不燃劑 發明에 뛰어든 金사장은 가산이 기울고 실험장비가 빈약, 이를 精神力 집중으로 보완하기 위해 손등을 담배불로 상처를 내 아직도 發明人의 執念을 입증이나 하듯 손등엔 수많은 흉터가 교호처럼 새겨져 있다.

發明 과정을 설명하는 金사장의 눈에는 이슬이 맺히고 지난날의 고통이 되살아나는지 표정 또한 굳어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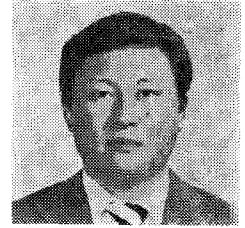
그러나 金사장의 그 같은 고통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막상 發明이 끝나 特許廳에 出願까지 끝내고 제품 생산에 착수했으나 소비자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

그러나 金사장은 不燃劑의 성능을 입증하는 국가공인기관의 시험결과와 實物을 들고 관계기관을 1年동안 92회나 드나들어 처음엔 거들떠 보지도 않던 관계관들을 감동시키기도 했다. 또 全國 70여개 소방서를 돌며 관계관을 설득, 소방관계자와 일반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不燃劑의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는 공개실험을 하기도 했다.

부산지역 공개실험에서는 관담인의 요청에 따라 그의 바지에 不燃劑를 뿌리고 그위에 다시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여 바지가 타는지 안타는지의 실험을 하기로 했다.

실험결과 바지는 조금도 타지 않았으나 휘발유가 터는 동안 다리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렇듯 오늘의 韓國不燃化學(株)



〈金載運 社長〉

라는 發明企業이 탄생하기까지에는 실로 역경과 고통의 나날이었다.

그러나 金사장의 역경과 고통은 이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萬人の 福」으로 피어나고 있다.

대형 화재발생시에는 유독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金사장의 發明品 不燃劑 「불안나」는 이제 「국가공인시험기관·난연시험합격·산림청고시제19호」와 국립공업시험원의 KSF 2271-1급 불연단열제도로서 건설부고시 제94호·건축물의 내장재 난연재료사용인가」 획득은 물론 KBS TV 뉴스와 공개시험 등으로 사랑을 독차지 하고 있다. 〈※〉